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경축 어버이날

인류의 참 어버이 '이기신 하나님'

미륵불은 '이기신 하나님'의 불경적 표현

어버이날을 명절로 지키는 유일한 종교

이 지구상의 종교 중에 어버이날을 경축일로 지키는 유일한 종교는 '승리제단' 뿐일 것이다. 이는 '이기신 하나님'이 인류의 참부모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다.

'이기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인류의 부모인가?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태초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한다.

태초에 에덴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해와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고 계셨다. 그런데 마귀가 이 세 분 중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을 사로잡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아담하나님은 남자가 되고, 해와하나님은 여자가 되었다. 그 두 분이 인류의 첫 조상인 것이다.

하나님이었던 우리가 사람으로 전락된 다음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이 되었다.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었으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기신 하나님' 으로부터 찬란한 빛이 발산되고 있다

남자와 여자로 변한 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결국은 죽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이기신 하나님' 은 인류의 어버이

한 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핏줄을 타고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오게 되었다. 한 분 남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지식들인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어 죽어가는 사실에 절치부심하시며 인류를 마귀의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할 장구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를 배출하는 일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가 1980년 10월 15일 출현하셨다. 태초에 잃어버렸던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을 되찾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신 것이다. 이기신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이다. 마귀를 이긴 존재이므로 그 능력과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기신 하나님' 은 지금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지식들을 애써 찾아고 있다. '이기신 하나님' 이 진짜 인류의 어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되다 할 것이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33)

“빛으로 화하면 불생불멸의 법신이 된다”

조금 있으면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은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그 빛을 받으면 인간 속의 마귀가 전부 전멸합니다. 인간 속의 죄가 눈 녹듯이 녹아 버립니다. 인간들이 그 빛에 의해서 전부 하나님으로 거듭납니다.

그 은혜의 빛을 받으려면 그 은혜의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갖추어지면 바로 태양이 어두워집니다. 마귀 영과 마귀 빛이 전멸되니까 태양

이 빛을 잃어버려요.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사람의 몸 전체가 빛으로 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빛은 태양 빛보다 억천만 배 강한 빛입니다. 그 억천만 배 강한 빛으로 화하기만 하면 그는 멸하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고, 즐거움과 희열 속에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하십시오!

구도의 길

음란한 마음을 죽이는 구세주의 영

지나호 기자 '도(道)의 시작은 음란을 끊어야' 를 읽고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단 독자분이 있다.

1.성욕과 구도의 상관관계를 말해줘야 합니다. 왜 구도를 하는 분들은 성욕을 끊어야 하는가요? 2.성욕이 일어날 때 구세주의 어떤 얼굴을 떠올리라고 하는가요? 3.음란한 생각이건 무슨 생각이건 어디서 일어나는가요? 4. 마음 자체가 없어지면 뭐가 나타나는가요?

우리는 왜 구도(求道)를 하는가? 도(道)를 얻으면 붓다가 되고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붓다(하나님)가 되면 영원한 희락을 누린다. 붓다(하나님)는 성(性)을 초월한 존재이다. 즉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여야만 붓다(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남자는 남성을 벗어나야 하고, 여성은 여성을 벗어나야 한다. 남성과 여성을 가리고서는 결코 붓다(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성욕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굴레에서 나오는 욕구이다. 붓다(하나님)는 성을 초월한 중성(中

性)이다.

그래서 각 경전은 음란(성욕)을 경계하고 있다. 음욕을 끊지 못하고 도를 얻고자 하는 것은 마치 모래를 짚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선가귀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음란죄를 지은 것이다(성경). 자기 부인은 여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수준 낮은 종교도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음란이 있다. 음란을 비롯한 모든 것은 나라는 주체의 의식에서 나온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음란의 총본부다. 그 음란의 영(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 없애야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음란의 영을 죽여 없앨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가 바로 구세주의 영이다. 구세주의 얼굴은 바로 구세주의 영이다. 따라서 구세주의 얼굴을 떠올리면 즉각 살마(殺魔)광선으로 음란의 영이 죽어버린다.

그러하여 음란의 영이 완전히 없어지면 마음속에는 오직 붓다(하나님)의 마음만 남게 된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해제단 이영자 총재 초청예배

“하늘 아래 승리제단 진리 이외의 새로운 이념은 없다”



진해제단 식구들이 2부 순서에서 합창을 하고 있다

진해제단(이창선 책임승사)은 4월 12일 이영자 총재를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다.

1부예배는 조희성 구세주께서 비디오 설교로 시작되었다. 구세주께서는 “예배를 볼 때 사력을 다하라. 찬송할 때도 사력을 다하고, 전도를 해도 사력을 다하고, 매사에 사력을 다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어서 김원찬 승사가 제작한 말씀요절 동영상 시청 후 진해제단 신도들이 준비한 합창을 감상하였다. 구구절절이 구세주 조희성 선생을 사모하는 그리움이 가득 들어있는 합창을 듣고 많은 신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창선 책임승사는 “초청 예배를 준비할 때 식구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식구들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승사다”라고 말했다.

이영자 총재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이라고 인사한 후 박장대소 웃음을 유도한 후 말씀을 시작하였다.

이영자 총재 말씀 요약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진해제단을 방문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진해제단 성도님들을 만나시는 게 좋으세요?”라는 물음에 “응, 그네들이 나를 막 끌어당겨. 그래서 생각하면 내가 막 빨려들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목숨 걸고 매달리는 사람들끼리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마음이야. 그래서 영남권에 가면 예배를 인도해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 오히려 예배 마치고 나면 몸이 더 가벼워. 참으

2편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내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본부제단 예배(4.6) 때 내린 이슬성신/ 김중만 승사 촬영



본부제단 3월사상식(4.8) 때 내린 이슬성신/ 이승우 승사 촬영



본부제단 3월사상식(4.8) 때 내린 이슬성신/ 이승우 승사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